

추모 예배 순서

집례_담당 교역자 또는 가장

예배시작 집례자

오늘은 고 〇〇〇님께서 소천하신 날입니다. 고인은 천국에 가셨지만 아직도 우리의 가슴 속에 고인의 모습이 살아있습니다. 이 시간 고인을 추모하며 하나님께 목도 드리심으로 추모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묵상기도 다같이

여호와와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와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와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찬 송 찬송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통일찬송가 466장) 다같이

- 1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맘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 2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 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 3 참되신 주의 사랑을 형언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 4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면류관 얻겠네
- 후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맘이 늘 평안해

말씀봉독 고후 1장 3-5절 (신약 286페이지) 다같이

- 3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 4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 5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말 씬 위로의 하나님 집례자

우리는 오늘 먼저 천국에 가신 고인의 신앙을 추모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추모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추모예배를 통해 고인이 걸어난 신앙의 여정을 추억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할지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찬송하리로다”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할 일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했습니다. 6절에서도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했습니다. 12절에서도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을 통과할 때 고통을 만나고 슬픔을 만나고 아픔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의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1. 위로와 자비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삶의 많은 환난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으며, 사십에서 하나 강한 매를 다섯 번 맞았고, 세 번 태장으로 맞고, 세 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습니다. 그는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있었지만,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위로가 풍성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고백합니까? “자비의 아버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믿고 의지하는 자녀들에게 “자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고난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 고난 속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으로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자기 백성이 범죄하면 징계하사 고난받게 하실지라도, 그들이 회개하며 부르짖으면 항상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사 구원과 회복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의 고난과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비의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자기 백성의 고난을 두고 보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2.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니다.

오늘 고인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지 ()년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생각해보면 얼마나 가슴 아픈 순간이었던지, 고인이 없이 살아온 시간들이 얼마나 힘겨운 시간이었던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세월 속에서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위로와 자비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당하는 삶의 현장을 주님께서서는 아시고 넘치는 위로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또한 이 넘치는 위로로 말미암아 우리와 같은 아픔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기 도 집례자

주기도문 다같이